

《漢世雄風—紀念滿城漢墓考古發掘50周年特展》

2018年12月28日 - 2019年3月28日

中國國家博物館

北京市 東城區 東長安街16號 天安門廣場 東側

소현숙*

1968년 중국, 문화대혁명이 한창이던 시절이었다. 봉건의 타파라는 이름 아래 곳곳에서 문화재의 파괴가 다반사처럼 행해졌다. 만성한묘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2천년의 잠을 깨고 어렵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20세기 100대 발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발굴답게 출토 유물의 수량도 엄청났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도굴된 적이 없어 한대인의 생사관과 喪葬 제도를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중국 국가박물관은 滿城漢墓 발굴 50주년을 기념하는 《漢世雄風展》을 2018년 12월 28일부터 3개월 동안 개최했다. 하북성박물관 소장 722건의 관련 유물을 북경으로 옮겨와 전시한 건데, 이 가운데는 피장자 유승의 金縷玉衣, 금동박산향로, 鳥篆紋이 상감된 은제 호, 쌍룡문 옥벽 등 도록을 통해 낯익은 중국의 1급 문물이 41%를 차지하고 있다.

‘만성한묘’는 하북성 保定市 만성에 위치한 두 바위산을 각각 파고 들어가 조성한 前漢

중산국 靖王 劉勝과 부인 竇綰의 무덤을 가리킨다. 유승은 ‘文景의 治’로 유명한 전한 6대 황제 景帝의 아들이며, 武帝의 배다른 형이다. 10여 살에 제1대 중신왕에 봉해진 후 42년 동안 재위를 했다. ‘정사를 돌보기보다는 주색을 좋아하고 사치스럽다’는 혹평을 듣기도 했는데,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은 수적으로나 질적



*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으로 모두 그의 화려한 삶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전시는 이처럼 화려한 유물들을 ‘한대 물질문화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전시는 5개의 주제로 구성했다. 먼저, 입구 왼쪽에 왜 이 전시가 기획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머리글[序]’이 있다. “역사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노력하자”는 마지막 글귀는 이 전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웅변한다. 제1주제 ‘화려한 시대의 모습(盛世風貌)’은 ‘漢·唐’을 고대 중국의 盛世로 보는 현재 중국의 역사관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한대 최고의 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박산향로를 비롯한 1급 문물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한대 물질문화의 정수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제2주제는 중산국과 유승을 소개하는 ‘중산국의 역사(王國往事)’다. 그 뒤로 이어지는 것은 유승 부부가 누렸던 ‘끝이 없는 영원한 즐거움(長樂無極)’이다. 화려한 보석을 감입한 잔[杯]과 영원한 쾌락을 위한 養生用 물건들은 유승 부부의 소망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드러내 주었다. 유승의 무덤에서는 실제 사용했던 마차 10량과 29필의 말이 출토되었는데, 그 가운데 유승의 출행용 마차 한 대가 복원되어 전시실 중간의 대형 공간에 버티듯 서있다. 우리를 한대의 화려한 성세로 데려가기라도 할 것처럼.

제3주제까지가 화려한 물질문화를 조명한 것이라면, 제4·5주제인 ‘산으로 능을 삼다(因山爲陵)’와 ‘정왕의 발견(發現靖王)’은 山陵이라는 무덤의 형태와 내부 구조, 그리고 옥의를 입고 잠든 정왕의 발견에 초점을 맞추었다. 만성한묘가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죽은 자 섬기기를 산자 섬기듯 하는[事死如生]’ 생사관이 오롯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대인들은 지상의 주거 공간을 지하에 그대로 재현했는데, 이런 특징은 개개의 유물을 전시하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유승의 묘에서 되살아난 俑의 해설이 곁들여진 화려한 색상의 입체 영상은 이런 한계를 멋지게 극복해주었다.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유승이 입었던 옥의였다. 2498개의 옥 조각을 1100g의 금실로 엮어 만든 옥의는, 유승의 몸에 맞춤 제작한 듯 배까지 적당히 올라와 있었는데, ‘죽어서도 영원히 살고자 했던’ 한대인의 열망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었다.

‘한대 물질문화의 발달’을 보여주려는 목적성이 강한 전시다보니 주제의 전개가 어색했다. ‘발굴 배경에서 시작해 무덤의 구조와 성격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본 후,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유물 하나하나의 의의와 기능을 탐색해나가는 구조로 전개했다더라면 만성한묘의 역사성을 더욱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걸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듯, 많은 관람객들이 기획의 의도와는 반대로 역방향으로 전시를 관람하고 있었다.